

우리나라의 열린교육정책과 학교건축의 동향에 관한 소고

Issue in School Building for Policy of the Open Education in Korea



류 호 섭 / 동의대 건축학과 교수
Rieu, Ho-Seoup / Professor, Dept of Architecture, Dongeui University
hsrieu@deu.ac.kr

1. 들어가면서

이 주제의 원고 집필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지만, 무엇을 어떻게 서술하여야 하나 처음에는 막연하였다.

그렇지만, 무언가 쓸 것은 있고, 써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라는 착각에 싫던 좋던 동의하였던 것 같다. 막상 쓰려고 하니, 평소 정리·정돈에 약한 성격이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 나 자신의 성격을 타하기도 하였고, 왜 동의하였는지 후회 막급이었다.

아울러, 그 동안의 선행 연구나 자료들을 보면, 이미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언급해오고 있었던 주제이기도 하여 더욱 망설여지게 되었다.

그래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 주제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필자가 귀국한 후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이었고, 후반부에도 기술하겠지만 그 동안의 학교건축과 관련한 연구나 기본 계획,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과의 업무적 교류와 경험 등을 바탕으로 형성된 필자의 부족한 지식과 약간의 연구 자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필자의 생각을 가능한 꾸밈없이 서술하고자 생각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리의 현상을 간접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열린교육에 대한 영국, 미국, 일본의 학교건축 대응 사례의 소개, 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과 학교건축과의 대응에 대한 요약 서술(순전히 개략적인 필자의 생각), 1990년대 중반 이후의 학교건축에의 변화 사례, 그리고 학교건축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의견 개진으로 정리하여 서술하고자 하였다.

2. 열린교육과 학교건축 대응의 흐름

“열린교육”이라고 한다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교육이라는 것, 그리고 그 후 1960년대에 미국으로 확산되고, 1980년대에 일본으로 도입되었다는 것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다. 물론 학교건축의 분야에서 열린교육에 대응한 각 나라의 공간적 대응은 매우 달랐다.

영국의 경우는 <그림 1>과 같이 주거 공간의 구성을 가진 하나의 영역이 반복되어 학교 전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미국에서는 <그림 2>와 같이 대규모의 공간에 가구나 칸막이 벽으로 구분하여 기능에 따라 소규모의 코너를 형성하여 대응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기존의 교실과 복도 사이의 벽을 철거하고 복도를 확장한 방식으로 대응을 하였지만, 그 후 시설



그림 1. 길몬트(Guillemont) 초등학교 평면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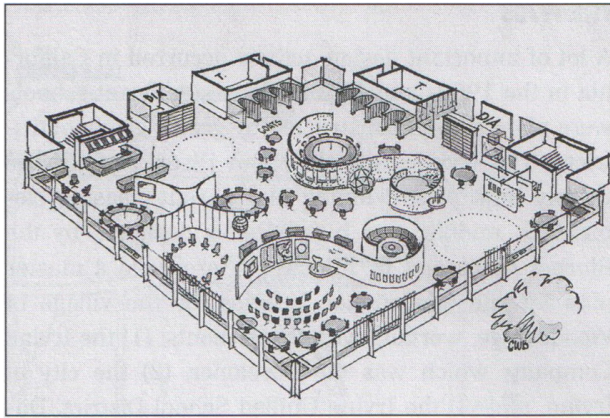


그림 2. Disney Magnet School의 Open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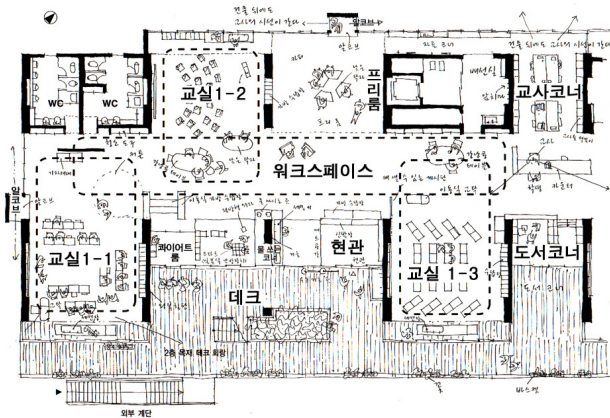


그림 3. 일본 하카다(博多) 초등학교의 평면

기준 면적의 향상으로 인해 선행연구¹⁾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림 3>과 같이 여러 기능의 코너를 구비한 학년단위의 학습공간으로 발전되어 갔다.

국내에서는 학교 교육이 획일·경직된 방식으로 정답형의 답습적 인간을 양성하고 있다는 비판 아래 창의적이고 주체성 있는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열린교육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80년대에 강하게 제기되었고, 1990년대 초반에는 열린교육학회도 설립되고 교사들의 연수를 위해 전국 순회의 강연을 했었다. 당시의 분위기는 과히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이 일시에 바뀔 것 같은 착각도 불러올 정도였다. 돌이켜보면, 이 시기가 학교건축·공간이 교수·학습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게 된 최초의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학교건축분야에서는 이런 분위기와는 다소 늦게 1990년대 중반부터 교실과 복도 사이의 벽을 없애거나, 교실 면적을 확대하거나 하는 등의 공간적 변화를 가진 신설학교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 류호섭, 일본 초등학교의 평면구성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교육시설, 한국교육시설학회, 14(2), 25-34. 2007년 4월

우리나라에서 이 주제에 따른 학교건축의 변화를 언급하고자 하면, 대략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의 교육정책과 학교건축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 나름대로는 이 주제에 따른 학교건축의 변화를 크게 ① 초등학교의 열린학교의 건축 ② 중·고등학교의 교과교실형 학교의 건축 ③복합화 학교의 건축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3. 교육과정과 학교건축의 대응

필자는 학교건축이나 공간은 교육과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우선 필요조건이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충분조건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의 필요조건이라고 함은 교실, 특별교실, 교무실 등의 아주 기본적인 물리적 조건을 말하고, 충분조건이라 함은 학교건축이 학생들의 정서성이나 사회성들을 발달시키고 환경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적 여건을 말한다.

따라서 필자는 학교건축의 변화를 언급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학교시설·설비기준의 변천을 상호 관련이라는 입장에서 크게 2단계로 구분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즉 1단계는 교육과정에 무 대응의 학교건축시기(학교건축의 필수적 요소를 형성해온 시기)이고, 2단계는 교육과정의 변화에 약간의 대응을 한 학교건축시기로 구분하였다.

3.1 교육과정에 대응하지 못한 학교건축

우리나라 교육과정 중에서 학교건축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시작한 교육과정은 1997년 제 7차 교육과정 부터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1955년의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 사조에 따라서 신교육이 강조된 제 1차 교육과정도 그 이전의 학교건축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가 정부수립과 6·25전쟁이 끝난 후의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학교건축에는 아무런 변화를 초래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교시설·설비 기준령이 처음으로 제정된 것은 1967년 10월 26일인 것으로 보아, 당시는 오늘날의 학교건축의 개념이 아닌 상태였다고 보아도 과장된 판단이 아닐 것 같다. 그 후의 교육과정과 학교건축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없이 국내의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각기 변화 및 발전해오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학교건축의 분야에서는 초·중·고등·특수학교의 기본적인 기능의 공간(교실·특별교실)만의 확보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학생 수에 대응한 수용위주의 정책에 대응하기에 급급하였

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변화(진보·실용주의의 교육과정에서 인간교육의 강조하는 학문중심의 교육과정으로의 변화, 그 후 국제 개방화 및 정보화 사회 등의 환경에서 도덕성, 공동체의식, 민주성, 창의성 등을 위한 1992년의 6차 교육과정 개정에 이르기까지)에 대응한 학교건축의 변화라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한다.

3.2 교육과정에 대응하기 시작한 학교건축

1997년 12월,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며 살아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및 일반계 고교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 설정하고 수준별 교육과정(단계형, 심화보충형) 도입을 담고 있다.

한편 당시 교육부의 시설과에서는 1997년 9월 “학교시설 설비 기준령”을 폐지하고 대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학교시설이나 설비측면에서 자율성을 확보해 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시설면적의 확대는 별로 없는 상태에서, 학교급별내의 학습수 규모에 따른 소요 실 종류와 수의 기준이 철폐되어, 일선 시도 교육청의 시설 행정에 혼란을 야기시켰다.

학교건축의 변화는 1990년 “국민학교 건축계획의 모형 연구”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서울에 불암 초등학교가 탄생한 것으로부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내용에는 선진국에서 한 참 진행중이었던 열린교육에 대응한 공간개념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그 후 1990년 이후 열린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1997년의 제 7차 교육과정의 제정을 배경으로 인하여 초등학교의 건축에서도 비로소 교실과 복도 사이의 벽이 오픈된 열린교실이 등장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교과군별로 영역화되고, 홈 베이스나 교과별 미디어센터를 가진 학교들이 신축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국가의 시설기준이 향상되어 새로운 학교들이 등장하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1990년대 시작된 교육부의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된 학교들에 한해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정책적 수단으로만 접근한 것이다. 학교건축의 근본적인 변화와 발달을 의도하였던 것은 아니다.

이후 교과군과 학년군 개념의 도입, 집중이수제 도입, 교과(군)별 수업시수 증감허용,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을 한 2009교육과정과 현재까지 이르는 개정 교육과정은 특히 학교건축에서 대응하여야 할 내용이 많은 것으로 생각한다. 교과간의 융합(STEAM교육)이나 창의 체험 활동,

스포츠 활동 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교실 공간의 오픈화와 교과교실제의 공간구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새로운 학교건축의 개념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하고 있는 것은 교과교실제 지원사업으로 기존 학교들의 리모델링이나 개수 사업을 통해 교수 학습방법의 개선이나 학습 성취도 향상을 의도하고 있지만, 신축 학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전혀 시도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이 사업의 추진에 교육과학부 시설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3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규정”과 이원화된 학교 건축비 국고 보조제도

우리나라에서 학교건축의 면적과 관련된 법적인 규정은 앞서 언급한 한 대로 1997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다. 여기에서 정하는 학교급별의 학생 수 기준 면적은 매우 적고, 무려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어 있다. 참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기도 하지만, 진작에 버렸어야 할 20세기의 유물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매년 각 시도 교육청에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이란 형식을 취해 학교급당의 면적을 향상시켜주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실제로 이 면적은 규정에 정해진 면적보다 많다). 이런 운영으로 인하여 교육청 리더의 학교건축에 대한 생각에 따라 시·도 교육청별로, 즉 지역적으로 신설학교 면적이 달라질 수도 있는 맹점이 있다. (법적으로는 이 규정에 있는 면적의 예산만 투입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학교는 의무교육시설인데 반하여 지역적 불균형이 생기게 되고 상대적으로 불평등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부산을 비롯한 일부 시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시설 기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현상이다.(기준이 없는 교육청도 태반이다) 매우 늦었지만 이제는 이 규정을 대폭 개선해 국가가 학교건축에 미래의 교육 방향성을 담을 수 있는 제대로 된 기본적인 틀을 갖추어 주고, 지역성이나 교육철학 등에 따른 다양성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4. 학교건축의 변화와 오늘의 모습

2013년. 오늘의 우리나라의 학교건축의 모습을 한 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단지 교육적 변화와 요구와 사회적 변화와 요구 등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건축·공간에 대한

요구는 다양하게 많은데 비하여 현재의 학교건축·공간은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네모난 상자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의 부족하고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편적으로 노력한 결과의 학교건축·공간의 모습이 일부 남아 있기는 하나, 대부분 과거로 회귀한 상태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학교건축·공간의 모습이란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닌,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부 공간 구성과 면적과 학교건축의 개념을 의미한다.

아래에 1990년대 중반부터 오늘의 시점까지 전개되어 온 정책·사업들의 결과물, 즉 초등학교, 중등학교, 복합화 학교의 모습에 대하여 서술한다.

4.1 열린 초등학교의 건축 동향

아래의 <표 1>은 2008년 연구한 “오픈플랜형 초등학교 평면구성 및 운영의식 분석”²⁾에서 인용한 표이다. 표에

표 1. 상명초등학교의 교실과 다목적 스페이스 사이의 변화

	개교 당시	현재 (2008년 12월)
블록 플랜		
단위 공간		

표 2. 열린 학교들의 오픈 스페이스의 개수 상태

권역	학교	준공	단위 교실	단위 면적	다목적공간의 길이	오픈스페이스 주변 개수상태
서울	교동	1997	8.0*6.0	48.0	6.0m	2007년 칸막이 도입
	행현	2005	9.0*7.5	67.5	4.2m	칸막이벽 도입
	상명	1994	8.0*8.0	64.0	8.0m	2006년부터 칸막이, 3차년 완료
부산	남문	2002	8.1*8.1	65.6	4.5m	미서기문 도입
	해강	1995	9.0*7.5	67.5	7.5m	저학년만 다목적공간 운영
	창진	1998	9.0*7.5	67.5	6.0m	칸막이벽 도입
	용수	2002	9.0*7.5	67.5	4.5m	미서기문 도입
광주	풍영	2002	8.4*8.4	70.5	4.2m	연차적 칸막이
	운리	2003	7.8*8.4	65.5	4.8m	연차적 칸막이
전북	원평	1998	11*7 10*7	77.0 70.0	5.0m	교실과 교실사이 여코디언문
	검산	2002	8.0*8.0	64.0	3.7m 4.5m	2006년부터 칸막이, 2년차진행
전남	해룡	2000	9.0*7.5	67.5	4.0m	칸막이 부분 도입
충북	월곡	1999	9.0*7.5	67.5	3.9m	조적식 고정벽 도입

2) 정주성·류호섭, 오픈플랜형 초등학교 평면구성 및 운영의식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08

의하면 13개교 모두 <표 2>와 같이 교실과 복도 사이의 벽이 없이 설립되었던 학교들이 열린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자, 슬그머니 모두 벽을 설치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열린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1990년대 중반에는 많은 초등학교들이 오픈 스쿨로 설립되었지만, 그 후 슬그머니 그 이전의 획일적인 편복도형의 학교 형태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된 배경으로서는 교사들의 저항(?)과 학교건축의 기준 면적이 열린교육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지 못한 측면에 있다고 생각한다.

4.2 교과교실형의 중등학교 건축 동향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한편 중등학교 건축의 변화를 보면 1997년 제 7차 교육과정의 공포이후 교과군의 개념과 수준별 이동식 수업에 대응하기 위해 신축되는 학교중 상당 수 학교를 교과교실제 운영의 공간구성을 한 학교로 건축하였다. 대부분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는데 2000년도의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전국에 약 50여개의 중학교·고등학교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나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도 2000년 이후 교과부가 추진하였던 현대화 사업이 종료되자 슬그머니 획일적인 공간구성을 가진 옛날의 형태로 회귀하였다. 아울러 상당수의 학교가 교과교실형 공간구상의 학교에서 기존의 특별교실형 운영을 하였기에, 결국 공간구성과 운영이 맞지 않는 상태로 되어 홈 베이스를 단지 비워있는 휴게실로 사용하거나 교과교실이 아닌 학급교실로 사용하거나, 교사 연구실을 창고로 사용하고나, 교과미디어센터를 빈 공간으로 돌려두고 있거나 하는, 학교에 따라서는 홈베이스나 미디어센터에 교실로 개수하거나 정독실을 만든다거나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었다.

4.3 복합화 학교의 건축 동향

우리나라에서 학교에 지역주민의 평생 교육을 위한 기능을 가진 공간이나 시설이 학교건축에 같이 설치된 것을 일반적으로 복합화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학교와 교육문화관이 같이 건축된 서울의 금호초등학교의 등장이 그 효시이다. 이 교육문화관에는 수영장, 헬스장, 강당, 에어로빅실, 체육관(대·소), 다목적실, 강의실(4) 등의 실이 갖추어져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후 서울의 몇 개 초·중학교들이 앞장 서 복합화를 추진해 왔고, 2008년 2월에 고등학교이하 각 급 학교 운영·설립 규정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국·공립학교에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둘 수 있다.”(제3조의2(복합시설))를 삽입하여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최근에는 경기도 광고 신도시에 수원시·수원교육지원청, 경기도시공사의 「광고에듀타운 학교 복합화시설」 협약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청소년 수련관(도서관, 시청각실), 스포츠센터(수영장, 체육관)을 2012년 3월 착공하였고, 일부 혁신도시의 학교를 대상으로 복합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지, 복합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이해 부족과 행정절차의 복잡함, 유지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장애자 시설이나, 보육원 등의 시설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의 납비현상이나 기존의 사립 보육원 단체 등의 반발로 처음 의도와는 달리 무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왔다.

그렇지만, 복합화가 됨으로 인하여 학교에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에 대응할 수 있고, 학교도 수준 높은 공간이나 강사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이제까지 보다는 많은 사례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지, 한 가지 고민해야 할 것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복합화된 프로그램을 학생들의 학습(학교와 사회의 융합)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공동으로 논의하고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학교건축의 현상에 대한 고찰

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학교건축에 관한 정책을 보면, 참으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우선 학교건축에 대한 비전이 없는 점(물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나름 미래학교모형을 연구하고, 세종시에 구현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 일반화하기에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³⁾)이 답답하고, 학교건축에 대한 미래의 비전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바쁜 일상에 묻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등이 답답하게 하는 요인이다. 1990년 이후 약 23년간 나름대로의 노력이나 흐름이 있어 왔지만 현상은 그러한 노력을 평가하기에는 많이 아쉽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여 왔지만, 어쩌면 교육과정에 대응하고 새롭고 다양한 학교를 창출하려면 이제부터의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도 생각한다.

필자는 1993년 일본에서 귀국한 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열린학교의 건축, 중등학교를 대상으로는 교과교실형의

3) 참샘초등학교가 1차 대상으로 건축되었지만, 미래학교의 모습이라고 동의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함

학교를 계획하거나, 이를 위한 강연회로 전국을 순회하였고,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현장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이제까지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개발원, 일부 시·도 교육청의 정책 및 연구 보고서 작성에 여러 차례 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매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전국의 우수학교 심사에 참여하여, 그해 설립된 학교들의 계획 및 설계 수준과 학교측의 공간 사용의식을 알 수도 있었다. 현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중등학교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의 중앙컨설팅타로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건축에 관심 있는 지인들과 일본이나 미국 등의 해외 학교들(주로 신축된 학교)의 견학도 매년 빠지지 않고 실시해 오고 있다.

이런 필자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여 보는 우리나라의 열린교육정책, 그리고 그에 대응한 교육시설 정책이나 산출물의 현황을 평가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싶다.

- 1) 총론적으로 언급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의 방향성, 즉, 국가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지방 자치단체, 그리고 학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의 운영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역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2) 그러나 각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부의 교육정책은 상대적으로 이상적인 것으로 비추어진다.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과거 산업혁명의 유산인 19세기 교실에서 교사가 가르치는 획일적인 일제식 수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총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론의 부재, 그리고 총론을 이해하고 학교문화와 학생 중심 위주로 교실 수업을 바꾸려고 하는 교사들의 의식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 것 같다.
- 3) 새로운 교육정책을 실시하려고 하면, 교육 환경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공간을 추가하여야 하는 경우와 아예 새로운 개념으로 공간구성을 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고 생각한다. 열린교육정책이란 기존의 획일적인 일자형의 편복도형 학교, 평지 플랜형의 학교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아울러 학급당의 학생 수에 상관없이 20평 정도의 교실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 블랜디드 학습, 협업학습 등의 다양한 학습방법을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선진국의 사례 등으로부터 이미 충분히 지식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은 그

렇지가 않다. 미래의 교수 학습방법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신설되어야 할 학교의 평면을 보면, 약 20년 혹은 30년 동안 학교건축의 시간은 정지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 4) 이렇게 된 이유를 열거하면, 우선 잘 구성되고 좋은 물리적 환경은 다양한 교수 학습방법 전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 잠재적 커리큘럼으로 전달되고 있는 규율, 규제, 복종 등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및 지식 부족, 경험 부족을 열거할 수 있다. 교사들의 이러한 상태가 된 이유의 하나로서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교육환경과 교수 학습방법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학습하지 않은 채 현장으로 배출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개선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5)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시설 정책이 교육정책과 대응하여 변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과정이나 교육정책은 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변화하고 새로워져야 하는 유기체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 따라서 교육시설정책도 보조를 맞추고 새로워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이 역시 거북이 걸음마 수준이다. 이런 현실은 필자도 포함하여 학교건축과 관련된 연구자나 국가나 시도 교육청의 정책 입안자, 사용자들이 세상의 변화는 알고 있지만 틀 속에 갇혀 개선에 대한 의지와 노력부족, 학교건축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이 이러한 현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시설행정이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대부분이 국립 대학교의 시설과에 근무하다가 이동하게 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초·중등의 교육과정, 교수 학습방법, 아동 발달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로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협업 학습 등의 교수 학습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간구성이 필요하고, 필요한 시설면적은 어느 정도가 되는 지 등에 대한 기획적 업무와 정책적인 행정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물론 시설국이었던 시설행정 담당 부서가 1개과로 축소되고, 현재의 업무량에도 인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된 점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 6)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볼 때, 학교의 전체 건축면적과 설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황, 주로 가격 입찰로 학교 설계자를 선정하고 있는

방식은 버려야 할 과거의 제도이며, 학교건축의 발전에 암적인 제도와 현황이라고 생각한다. 건축가들의 개성 있고 창의적인 작품을 요구하기 앞서 시급하게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

6. 나가면서

이제까지 1990년부터 2013년까지의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과 대응한 학교건축의 변화와 결과의 현상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는 매우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이다.

너무나 늦었지만 새로운 학교건축의 모형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까지 학교건축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않은 제도나 의식을 과감한 개선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학교교육·학교건축과 관련한 여러 다양한 입장의 전문가(계획·설계 분야의 전문가와 건축 행정가, 교육자들), 교사, 학부모들이 머리를 맞대고(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의논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교 모형을 제시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

참고문헌

1. 이호진, 국민학교 건축계획의 모형연구, 교육부, 1990
2. 류호섭, 초등학교의 다목적스페이스에 대한 건축계획적 연구, 교육시설, 한국교육시설학회, 2(2), 27-39, 1995. 06
3. 한국교육시설학회, 21세기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시설에 관한 학술 심포지엄, 1999. 11
4. 류호섭, 박영숙, 최병관, 열린교실의 평면구성에 대한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한국열린교육연구협의회, 2000
5. 류호섭, 일본 초등학교시설의 발달동향에 관한 연구, 교육시설, 한국교육시설학회, 9(6), 5-13, 2002. 11
6. 류호섭, 일본 초등학교의 평면구성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교육시설, 한국교육시설학회, 14(2), 25-34, 2007. 04
7. 정주성·류호섭, 오픈플랜형 초등학교 평면구성 및 운영의식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08
8. 學校建築 海外事例集 日本建築學會編, 彰國社. 1995
9. Mark Dudek, ARCHITECTURE OF SCHOOLS, Architectural Press, 2000
10. 류호섭, 고등학교의 평면구성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9권 제1호, 2002
11. 류호섭, 초등학교 교사의 공간 종류 및 설치 현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계획계 논문집 제 18권 2호, 2002
12. 류호섭, 중학교 교사 평면구성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9권 제3호, 2002